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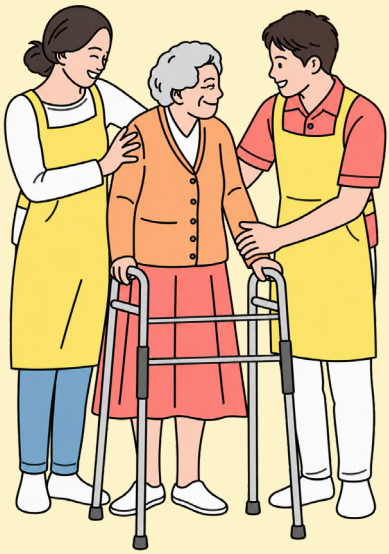
돌봄 인력 부족, 왜 외국인력이 논의될까?

-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는 커지는 반면,
돌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종사자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봄 직종 연령

육아도우미	62.1세
요양보호사	61.4세
간병인	62.6세
노인돌봄 종사원	60.4세
가사도우미	63.1세

50세 미만 비율은 2~11%에 불과합니다.



돌봄 인력 부족은 단순한 인원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 근로조건 · 인력 유입 구조가 함께 얽힌 문제입니다.
외국인력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돌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외국인 돌봄인력 정책은 어떻게 확대됐을까?

- 돌봄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 확대가 먼저 추진되었습니다.



2022

-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 공론화



2023

- 서울시·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2024

-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사업 시작
- 유학생·졸업 후 구직자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경로 확대



2025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 전문연수 과정 추진
-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조례 통과



외국인 돌봄인력 유입 정책은 빠르게 확대됐지만,
어떤 돌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돌봄서비스 특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아동돌봄-외국인 가사관리사, 실제 수요와 맞았을까?

- 아동돌봄은 수요 구조부터 다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2024년 9월 100명으로 시작
- 2025년 3월 기준 89명 활동
- 148가정 이용
- 일 4시간 이용이 56.8%로 가장 많음

- 가정 내 종일 돌봄 수요는 제한적
  - 보육·취학 현황
    영아 취원율 83.7%
    유아 취원율 94.3%
    초등 취학률 100%
- 돌봄 필요 시간은 주로 오후 4~6시에 집중
- 외국인 육아도우미의 단독 종일 돌봄을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도 매우 낮음

※ 단독 종일 돌봄 적절 응답:
영아 부모 1.6% / 유아 부모 1.8%

아동돌봄은 '풀타임 인력 확대'보다
필요 시간대와 이용방식에 맞춘 설계가 중요합니다.

노인돌봄-자격자를 늘리면 인력난이 해결될까?

- 요양보호사 자격자는 많지만, 실제 종사자는 적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자 287만 5,159명	요양보호사 자격자 2만 2,766명
실제 요양보호사 종사자 65만 7,104명	요양보호사 종사자 6,644명
→ 자격자 대비 종사율 약 23%	→ 외국인 자격자 중 종사율 약 29%

요양보호사 종사 현황

- 전체 종사자 중 60대 이상 약 66%
- 40대 이하 자격자의 실제 종사 비율 10% 미만
- 자격자 확대만으로는 한계, 처우 개선 필요
- 관리가 가능한 시설 중심의 단계적 도입 검토



노인돌봄 인력의 핵심은 자격자 수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근로조건과 정주 경로입니다.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무엇을 갖춰야 할까?

-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에는 자격·교육·관리체계와 노동권, 사회적 수용성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 **신원·안전** 신원 확인 / 범죄경력 조회 / 학대 예방교육
- **전문성·교육** 한국어 / 문화 이해 / 자격 인정 기준 / 보수교육
- **고용관리** 등록제 / 표준근로계약서 / 관리·감독 체계
- **노동권** 최저임금 등 기본 노동권 / 종사자 전반의 처우 개선
- **사회적 수용성** 이용자·고용주 대상 다문화 수용성 교육

- 외국인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31%**
- 기본 노동권 보장 동의 **79%**



→ 아동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외국인 아동돌봄 서비스 의향은 낮지만, 노동권 보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높았습니다.

돌봄의 질과 종사자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관리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어떤 외국인 돌봄정책이 필요할까?

- 아동·노인돌봄의 수요와 현장 여건에 맞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

① 수요에 맞게

아동돌봄



- 수요·시간대·고용방식을 먼저 파악
- 풀타임 중심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
- 아동 발달 영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 검토

② 일할 수 있게

노인돌봄



- 처우 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도입
- 관리 가능한 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
- 초기에는 내국인 요양보호사와 2인 1조 배치 검토

③ 머물 수 있게

외국인 돌봄서비스 종사자



- E-7 → F-2 → F-5 경로의 실질적 충족 가능성 검토
- 정주자격 상향 가능성이 있어야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매력도 향상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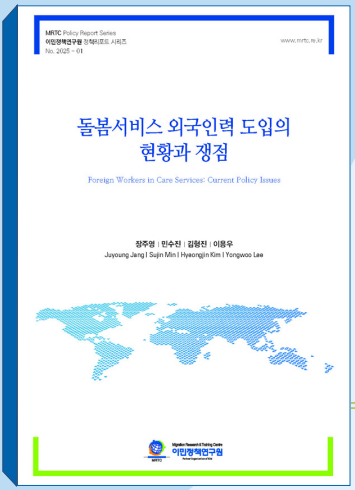
-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관리·감독 체계
- 내·외국인 동일한 권리와 적절한 처우
- 이용자·고용주 대상 다문화 수용성 교육

외국인력을 단순한 대체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질·근로조건·정주 가능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mrtc.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발간물 ➔ 정책보고서



No.2025-01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리포트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현황과 쟁점

장주영 | 민수진 | 김형진 | 이용우



이민정책연구원
https://www.mrtc.re.kr/data/01.php

최신연구자료 열람 | 정책자료 확인 | 통계자료 이용 | 연구성과 검색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기획관리팀(02-3788-8020, 8012)